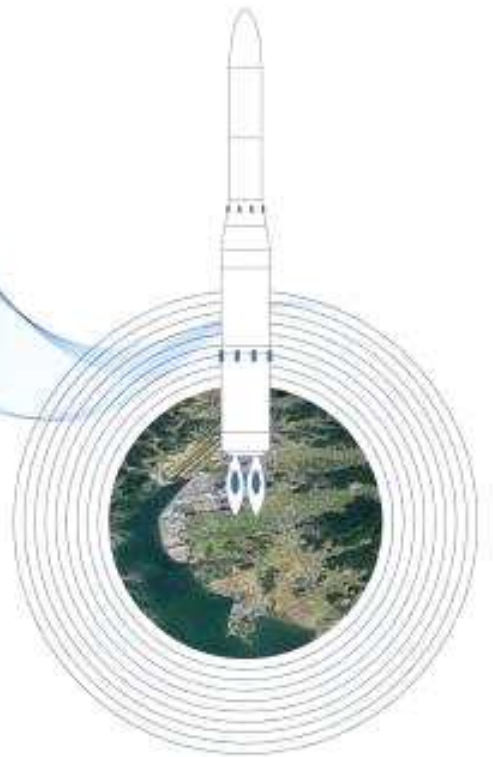


2024. 1월

우주항공산업 동향



우주항공과 미래도약
함께 합니다.



우주항공산업 동향

관 내 동향

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, 이르면 5월 개청

- 우주항공청 특별법(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)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-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중앙 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, 산업 육성, 인력 양성,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는 내용이 골자다.
-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며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.
-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어 연구개발(R&D) 기능을 유지하였다.
- 또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,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,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-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으며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어 이르면 올해 5월쯤 개청 될 전망이다.

과기부 제1차관, 사천시 방문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시동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부) 조성경 제1차관이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사천시를 방문했다.
- 조성경 차관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 건물들을 살피고, 사천시장을 만나 사천시와의 협업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.
- 그러면서 “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, 우주인류, 우주안보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자원강국, 경제강국, 안보강국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며, 사천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생생한 현장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리고 “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
- 한편,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사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해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
사천시, 경남도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공식 출범

-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한국판 나사(NASA), 우주항공청이 등지를 틀게 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준비단이 공식 출범했다.
- 경남도와 사천시는 16일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준비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’ 현판식을 가졌다.
-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은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는 주변 도시를 산업·연구·국제교류·교육·관광 등 복합 기능이 갖춰진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성한 것이다.

- 경남도와 사천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, 복합도시 개발 기본구상 및 비전 수립, 정주여건 개선 과제 발굴 등 도시개발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.
- 단장은 경남도 경제부지사, 공동 부단장은 경남도 산업국장과 사천 부시장이 맡는다. 필요시 추진 상황과 역할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.
-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2025년 정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하는 것은 물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.
-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은 현판식 후 킥-오프 회의를 열고,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사항에 대해 재차 점검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다.
-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.
- 박동식 사천시장은 “경남도와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한편, 본격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

KAI, 1조 4000억 규모 소형무장헬기 2차 양산계약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방위사업청과 1조 4,053억 7,000만 원 규모의 육군 소형무장헬기(LAH) 2차 양산 계약을 맺었다.
- 이번 계약은 KAI의 지난해 매출의 50.4%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약 60개월이다.
- 계약은 소형무장헬기와 기술교범, 후속기술지원 등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2차 물량은 최초 양산 물량 공급 이후 연속으로 2025년 4분기부터 납품된다.
- KAI는 지난해 말 LAH 최초 양산계약을 맺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4년 말 초도 납품을 목표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.
-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2번째 국산 헬기로 육군의 항공타격작전 및 공중강습엄호 등의 임무를 맡으며 기존의 노후화된 기종을 대체한다.
- KAI는 향후 LAH의 양산체계를 공고히 하고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헬기, 지휘통제 헬기 같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를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.

KAEMS, 일본 피치항공사 초도기 정비 출고

- 한국항공서비스(주)(KAEMS)는 15일 일본의 피치항공사(Peach Aviation Ltd.) 기체 중정비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.
-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, 피치항공 사카가미 요시마사 상무, 캄스 김준명 대표를 포함한 캄스, 피치항공, KAI,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- 캄스와 일본 피치항공사의 만남은 지난 2021년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지원하고 경남TP가 추진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고객 발굴과 상호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.
- 이로 인해 캄스와 일본 피치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체 중정비 계약을 체결하게 됐으며, 2대의 민간 항공기 정비를 맡겼다.
- 이후 캄스는 동체, 날개, 배선, 객실 등을 상세 점검하는 기체 중정비를 마치고, 드디어 15일 2대 항공기 가운데 1호기 출고 행사를 갖게 된 것이다.
- 캄스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유일 정부지정 항공MRO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 7월 설립됐다.
- 이후 2019년 초도정비 수행을 거쳐 2022년에는 민항기 중정비 100호기를 달성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항공정비 기술력을 축적하고, 각종 국제인증을 획득해 반납정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
- 특히, 지난 2021년에는 A320 계열 항공기와 관련한 정비조직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비업체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.
- 김준명 캄스 대표는 "우리의 사업 영역이 해외시장까지 확대됐다"며 "앞으로 '글로벌 종합 항공MRO 전문기업'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- 박동식 사천시장은 "캄스가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정비 기술로 항공기 정비 사업영역을 확장해 세계 항공사와 함께 나날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"고 격려했다.
- 2011년 설립된 피치항공사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서울, 부산, 중국, 홍콩, 대만, 태국 등을 취항하는 일본 항공사다.

도 내 동 향

경남도·경남도의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환영

-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.
- 경남도는 “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”고 말했다.
- 경남도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.
- 김진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“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국내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치하는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연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”고 밝혔다.
- 도와 의회는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정부 및 사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남은 절차와 과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.

2024년 우주시대 경남 실현,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 도약 준비

- 경남도는 2024년을 ‘우주시대 경남 실현, 첨단기술 육성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세대를 위한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에 행정력을 집중한다.
- 이에 도는 ‘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’ 및 ‘초대형 PM-HIP 핵심제조공정 기술개발’ 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(AI), 소형모듈원전(SMR), 반도체, 바이오산업 등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본격 가동하여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한다.
-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('24~'28, 총사업비 2,178억 원)을, 사천지구에는 위성개발혁신센터('24~'26, 총사업비 394억 원)를 구축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우주환경 시험시설과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에도 나선다.
- 경남도는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시화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‘미래항공기체(AAV) 실증센터’('23~'25, 총사업비 233억 원) 구축 등 미래항공교통(AAM)산업도 지난해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.
- 이 외에도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기술개발 추진과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항공용 필수 기능 소재인 실란트의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‘우주항공·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’('24~'28, 총사업비 300억 원), 미래모빌리티용 경량 금속소재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‘고강도·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사업’('24~'28, 총사업비 225억 원)을 새롭게 추진해 우주항공·방산·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

경상대-ANH, ICT 석·박사 융합 연구인재 양성 맞손

- 경상국립대학교 'ICT혁신인재사업단'은 지난 10일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와 정보통신기술(ICT) 석·박사 융합 연구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이번 협약은 다학제 문제중심학습(PBL) 기반의 연구 교육과정을 통해 ICT 석·박사 융합 연구인재를 양성하고 ICT혁신인재4.0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현장 교육실습에 협력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했다.
-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는 우주항공 설계분석 전문기업으로 국방·우주·항공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다.
- 경상국립대 ICT혁신인재사업단은 미래사회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해 정보통신기술(ICT) 전문인력을 양성한다.
- 또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ICT 융·복합기술 관련 인력양성과 및 연구개발을 촉진한다.
- 이를 통해 지역의 항공·모빌리티·국방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

국 내 동 향

우주산업 인력 첫 1만명 돌파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부)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우주산업 활동 금액은 3조 6,55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.6%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.
- 이는 ‘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’를 통해 위성통신 안테나 수출이 증가하면서 위성방송통신 분야 기업체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.
- 우주산업실태조사는 기업체·연구기관·대학 등 총 52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2022년 실태를 반영했다.
- 분야별로는 우주기기 제작에 쓰인 금액이 1조 1,669억 원으로 위성체 제작(6,447억 원), 발사체 제작(2,993억 원), 지상장비(2,147억 원), 우주보험(82억 원) 순으로 사용됐다.
- 우주활용 활동금액은 2조 4,882억 원이 쓰였는데 2조 3,810억 원은 위성활용 서비스·장비, 과학연구 750억 원, 우주탐사 320억 원 순이었다.
- 우주산업 기업체 매출액은 전년보다 14.9% 증가한 2조 9,519억 원을 기록했다.
- 우주산업 수출액은 2022년 7,279억 원을 달성했으며 수입액은 전년보다 1.9% 증가한 2,344억 원으로 집계됐다.
-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위성활용 서비스·장비로 92.2%를 차지했으며 위성체 제작과 발사체 제작은 각각 6.0%, 1.4%를 차지했다.
- 또한 우주산업 참여 인력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기업체 고용인력이 7,501명으로 가장 많고 우주 분야 연구에 참여한 대학 인력(교수·학생)이 1,393명으로 뒤를 이었다.

통신3사, 스타링크 국내 도입으로 UAM 시대 준비

- 국내 통신3사(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)가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.
- 스타링크는 전세계 이용자에게 고속, 저지연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설계 및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이다.
- 저궤도에 1만 2,000여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.
- 지난 2일에는 별도의 위성 안테나 없이 바로 휴대전화와 연결이 가능한 ‘다이렉트 투 셀’(Direct to Cell) 위성 6기를 발사하기도 했다.
-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지상망과 달리 지구국과 안테나만 있으면 오지나 재난지역, 해상 등 지상망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, 무인항공기(UAV) 상용화에도 필수적인 기술이라 통신3사도 지상망이 깔리지 않은 해상, UAM 등 항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스타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.

해 외 동 향

스페이스X, 우주 기지국 발사

-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‘우주의 기지국’을 쏘아 올렸다.
- 스페이스 X는 위성-휴대전화 연결 서비스인 ‘다이렉트 투 셀’을 위해 3일 발사한 위성 6개가 지구 저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.
- 다이렉트 투 셀은 일종의 기지국 역할을 하는 위성을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악이나 외딴섬 등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호 감도가 약한 지역에서도 이용가능하다.
- 스페이스 X는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‘스타링크’를 위해 지금까지 5000개 넘는 위성을 발사했지만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되는 위성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.
- 스페이스X는 미국 내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에 다이렉트 투 셀을 이용한 문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.

중국, 세계 최대 규모 우주 기상 관측망 구축

- 중국 국가우주과학센터(NSSC)가 진행하는 우주 기상 관측 프로젝트 '중국 자오선 프로젝트'가 최근 2단계 공정을 1차 완료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기상 종합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.
- 이 네트워크는 중국 최북단인 헤이룽장성 모허에서 남부 하이난섬까지, 동부 해안인 상하이에서 서쪽 끝인 티베트 자치구 라싸까지 우물 정(井)자 형태로 이어진다.
- 이 프로젝트는 8년간 15억 위안(약 2,750억 원)이 투입되었으며 전천후·상시 글로벌 우주 관측 프로그램으로 수십 개국에 걸쳐 5,000여 관측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2008~2012년 진행된 자오선 프로젝트 1단계 공정은 87개 관측장비를 설치했고, 2019~2023년 진행된 2단계 공정에서는 195개 장비를 추가 설치했다.
- 특히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첨단 지상 전리층 탐지 장비 등 44개 유형의 장비 약 300개를 갖춰 전리층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기 폭풍(태양폭풍) 등 우주에서의 작은 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작성일	2024. 1. 17.(수)	보고일	2024. 1. 18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김난주(055-831-3473)